朝鮮日報 夕刊 二十二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 衡平社事件의判決
## 取調警察의責任如何

一

累次 公判을 繼續하든 所謂 衡平社前衛靑年同盟事件은 지난二十日 光州地方法院에서 安田裁判長으로부터 十三名에對하야 無罪、一名에對하야 二年六個月의 懲役이란 言渡가잇섯다。二年六個月의 懲役言渡를바든被告一名도 衡平社關係로는 아니오 딴 事件으로 有罪의 判決을 바든것이므로 所謂『衡平社秘密結社』라는것은 存在치 안흔것이 判明되엇다。따라 이 事件을 檢擧하고 取調한 光州警察의 責任도 論議를 免치 못하리라 밋는다。

二

光州警察이、이 事件을 有罪로 認定하고 檢事局에 送致하기 까지에는 的確한 證據가 잇서야 할것이어니와 今番 事件의 內容을 들으면 結局 的確한 證據는 업고 모도 被告들의 『自白』에 依한 것이라 한다。『自白』이 犯罪構成上 重要한 要素가 될런지는 모르나 事實 存在치 안흔것을 自白하기 까지에는 어떠한 關係가 잇섯는것을 想像할수잇지 아니할가。卽 無理히 自白치 안흐면 안될 肉體的 苦痛이 잇섯거나 警察에서오래 잇기를 즐겨하지 안는 被告들의 心理에서 업는 것을 잇다고 까지 自白한것이 아니랴。그러면 犯罪構成에 第一 重要條件이 되는 物質的證據가 薄弱하게 被告의 自白에만 依한것은 警察의 疎忽에依한 失責이라고볼수도잇슬것이다

三

光州警察뿐아니라『自白』에 依하야 犯罪被告人으로서 送局되엇다가 無罪白放 乃至 一部無罪의 判決을 바든 例는 非一非再다。特히 大量的 思想運動事件에 잇서서 이것을 보는것은 朝鮮의 特有한 現象이다。吾人은 이런 事實이 잇슬때마다 總督府當局의 注意를 促한바 잇거니와 吾人은 今後 徹底히 地方警察을 督勵하야 이런 事件이 再現치 안키를 바라는바이다。이러하라면 먼저 地方警察官의 素質向上을 要할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어에는 制度上의 重大한 要할것이라 밋는다。말하자면 人民의 言論、集會、出版、結社의 自由를 너무도 制限하기 때문에 人民의 言行은 모다 公公然히 行해지지 못하고 따라 人民의 言動은 모다 疑惑의 눈으로 對하게 되나니 이곳에 秘密結社의 嫌疑도 보이고 治安妨害의 行動으로 推測하게도 된다。萬一 朝鮮에 言論、集會、出版、結社의 自由가 어느 程度까지 緩和해 진다할진대 이런 事態의 失手는 만치 안흘것이다。

四

이것은 朝鮮에 이가티 冤罪에 關할만한 事件이 자주 나옴은 主로 地方警察의 素質問題에도 보지만 當局의 人民의 基礎權利인 言論、集會、出版、結社의 自由를 極度로 制限하야 人民의 意思發表의 機會가 적고 따라 그들의 言動이 每樣 公公然하게 못나오기 때문에 警察이 人民의 言動을 恒常 疑惑의눈으로 보는때문이며 이런點으로 보아 朝鮮에 이러한 自由를 速히 緩和할 必要가 잇다고밋는다。監督當局의 深甚한 反省을 促하는바이다。

# 經濟斷交念慮코 獨總統結局讓步?
## 絕對受諾不能點은修正要求
## 로카르노協定案과獨逸態度

【伯林二十一日發同盟】로카르노協定案에對하야 獨逸政府는 到底히 受諾할수업다는 見解를가지고잇섯스나 萬若 該協定案을 全面的으로 拒否하는境遇에는 全然 孤立狀態에 陷하야 對獨經濟制裁案斷行의 憂慮가잇스므로 히틀러總統도結局一步讓하야協定案中 絕對로受諾치못할 條項은 解消또는 修正을 主張하는데 지나안흘까 思料되고 히틀러總統은 二十二日 프레스로ー에서 第六次의 選擧演說을行하야 로카르노會議協定案에對한 獨逸政府의態度를宣明하기로되엿다

### 獨代表歸國 即時總統에報告

【伯林二十一日發同盟】二十一日午後 크로이돈飛行場發 歸國의途에오른 獨代表립벤트로프大使는 午後七時半 템펠호ー프 飛行場에到着即時 自動車로 히틀러總統官邸에赴하엿다 大使는 히틀러總統과會議 倫敦聯盟理事會의 經過及 이든外相과의 會談結果를 報告한後 今後對策을 協議하엿다

(히틀러獨總統)

彼等이 今後十年압일을 豫測할만한힘이잇다면 이런手段으로부터 必然的으로 生할可恐할 結果를깨닷고 戰慄치안코는 잇슬수업슬것이다

### 有資格者採用試驗

總督府가 明年度에 採用할 有資格者試驗을 擧하야 上瀧總督府人事課長은 二十日午後三時發表하엿는데 明年度有資格者採用은 昨年同樣으로 日本內地에서大名、城大에서 四名을 採用키로되어잇다

# 라인國際軍駐屯 數週間에不過?
## 로카르노協定案中不滿點은代案作成이必要
## 英外相獨代表에陳述

(이든 英外相)

【倫敦二十一日發同盟】이든外相은二十一日獨逸代表립벤트로프大使의出發에압서 同氏를 外務省에招致코 로카르노協定案에 對한獨逸政府의 回答을 要求하야 如左히 提案하엿다고 解釋된다

一、獨逸政府는 로카르노案을 檢討한後 곳回答하기를 바란다 反對點이잇스면 獨逸政府의代案作成이 잇기를 바란다

一、獨逸政府는 國際警備軍의 라인란드 駐屯에 反對하는模樣이나 英國政府로서는 國際警備軍의 駐屯은 最短期間이라 直히말하면 數週間에 끗칠意圖인것을 諒解하기바란다

### 人民投票前 히總統演說

【함부르그二十日發電通】히틀러總統은 人民投票前의 全國遊說途上에잇는데 二十日夜九時부터 함부르그에서 五十分동안 演說을 試하엿다 倫敦理事會의 推移에 關해서는 웬일인지 言及을 避하고 單히 抽象的인 平等論及 面目論을 强調한것은 總統의 對倫敦折衝에 어떠한 微妙한 協調點이 釀成되고잇는것을 證明하는것이라고 解釋되어잇다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나는 國際協力을 希望하는者이오 또 이方針에따라 行動하고잇다 다만 이제 슬프게 생각되는것은 一部 國際政治家가 獨逸國民에게 惡罵를보냄으로써 協力이 實現될수잇다고밋는것이 이것이다 萬若

# 滿洲國不承認코 抗日에共同戰線
## 『暴露』된蘇中密約內容

【上海二十一日發電通】蘇中密約에對하야 蘇聯中國兩方面에서는 頻頻히 否定的言說을 發함에不拘코 該交涉이 相當히 進展을 보고잇슴은 漸次 各方面에서 드러온 情報에 依하면 日本의 大陸進出阻止를 目的으로한 蘇中密約은 蘇聯大使보고모로프氏로부터 蘇聯中國不侵略條約의 形式으로 蔣介石氏에 提案한것으로 그內容은

一、蘇聯의 滿洲國絕對不承認

二、中國共產黨、共產軍其他共產主義色彩의 諸團體에 對한援助中止

三、共產黨은 從來의 戰術을一變하야 反蔣會로ー간을 抗日會로ー간으로 고칠것

四、新疆省의 獨立運動을 援助치안흘것

等이다 蘇聯側은 右不侵略條約을 다시 對日戰備를 核心으로한 蘇中軍事同盟에까지 進展식히려하는 底意를 必要로한다하며 인제蘇中密約說은 漸次그眞相이 暴露되려는 形勢에잇다

### 世塵을避하야 蔣介石突然鄕里에 對日密策講究?

(寫眞은 蔣氏)

【南京二十二日發同盟】行政院長 蔣介石氏는 二十二日突然 夫人同伴 飛行機로 南京出發 鄕里奉化로서 向發하엿다 蔣介石氏來往은 表面省墓때문이라稱하나 從來蔣氏는 重大問題에 直面할적마다 奉化에 歸還하야 고요히 그對策을 講究한例가잇다 今回에 蔣氏는 有田大使와의 會見及 東京事件에 鑑하야 日中關係國交調整에 關한 具體策을 考究하는것으로 觀測된다

### 安全保障條項要旨

【倫敦二十一日發同盟】新海軍條約第四篇安全保障條項은 四項으로되엇는데 要旨는 如左하다

一、偶發事故로 戰艦이 毀損使用할수업는 狀態에 陷한境遇에 代艦을 建造할수잇슴

一、戰爭이 勃發한때에 署名國은 協議한後 一時條約의 制限을 停止할수잇슴

但 戰鬪行爲의 終了와 同時에 條約은 再次 效力을 發生함

一、署名國以外의國이 條約制限以上의 建艦을 遂行할 境遇에는 署名國은 相互通告하야 協議를 遂함

一、締約國의 國家的安全이 어떠한 事情變化로 毀失될 境遇에도 同樣으로 通告하야 協議를遂함

# 潛水艦使用制限 各代表調印約束
## 新海軍條約의內容

【倫敦二十一日發同盟】海軍縮少會議第一委員會는 二十一日午前十一時半부터 英米佛伊四個國代表와 日本側 옵저버ー藤井代理大使、藤田海軍大佐等 四十餘名出席下에 開會되엇다 第一委員會는 起草分科委員會가 提出한 新海軍條約案과 潛水艦使用制限條約案을 審議可決함에當하야 南阿代表는 二個留保條件을 附하엿다 新條約 要旨는 如左하다

▲新海軍條約案
第一篇 建艦通報條項
第二篇 艦種艦齡條項
第三篇 質的制限條項
第四篇 安全保障條項

▲潛水艦使用制限條約案

▲議定書
倫敦條約第四篇 潛水艦使用制限條項은 失效되지안코華府倫敦兩條約調印國은 依然 同條約을 準用함
追加議定書

이結果 海軍縮少會議는 來二十五日午後四時 全體會議를開催하야 英米佛三國代表는 新海軍條約案에 調印하기로 決定하엿다

【倫敦二十一日發同盟】海軍縮少會議第一委員會는 潛水艦使用制限條約을 別個의 議定書로하야 日本을包含한 新海軍條約署名國에 依하야 調印하겟다는 旨를 決定하엿다

條約調印國은 建艦通報契式이 新海軍條約滿期後도 國際協定으로 存續할것을希望함

또今後 現在以上의 海軍軍備縮少가 可能하기를 希望한다

### 聯盟理事會 二十三日再開

【倫敦二十一日發同盟】聯盟理事會는 二十三日午後四時부터 開會하기로 되엇다 右理事會席上에서 各國代表에게 對하야 로카르노會議協定案이 通達되고 그런然後에 理事會는 同協定案을 正式으로 受理하야 記錄에 남길터이다

## 世界漫史

### 廣田內閣政綱發表

滿天下注視裡에 二、二六事件直後의 超非常時局을 收拾할 大任을 帶하고 成立된 廣田內閣의 政綱政策에 對해서는 內外를 勿論하고 非常한 注目으로써 어 發表를 기다렷든것은 事實이다。組閣經過로보아 軍部의 要求가 그 政綱의 中心이될것은 모다 想像한바이나 어떠한 形態를 具備코 出現하느냐하는 것이 萬人關心의 的이엇다。十七日에發表된 廣田內閣의 政綱政策은 日國體明徵、日國防의充實、日自主積極外交確立、日稅制改革에依한 財政經濟의 刷新 日國民生活의安定……云云하야 모든것을 다表現한것가트면서도 아모것도 表現치아니한 曖昧漠然한 것이엇다。이것은 及其也、軍部의 入閣條件인 四大條項을 多少 敷衍한데不過하다。그러나 어는 豫想과 별다름이 업스매 크게 失望할것은 勿論 업거니와 要는 今後의 實施如何에 잇다할것이다。

### 對獨問責案通過

獨逸의 라인란드出兵과 로카르노條約破棄問題를 處理할 로카르노條約國會議와 理事會는 倂行的으로 英京倫敦에서 前週에 繼續하야 進行되엇는바 獨逸의 會議參加問題로 一時 會議는 停頓되엇고 또對獨問責에對한 英對佛白의 意見對立으로 或은 會議가 危殆하게 되지안흘가 念慮까지 되엇스나 그後 獨逸의 代表派遣으로 好轉되고 佛白의態度緩和와 英國의 讓步로 會議는 比較的順調로 進捗되엇다。이리하야 十九日의 理事會는 獨逸問責決議案을 滿場의 反對不拘코 滿場一致可決하야 獨逸의 國際法違反을 確認하게 되엇고、로카르노條約國會議는 로카르노新協定案을 可決하야 佛蘇援助條約을 國際法廷에 提訴할것과 獨逸의 條約侵犯行爲에依한 新事態收拾과 今後의 保障에 關한 新協約을 짓게되엇다。또 來五月에는 國際會議를 招集하야 新平和問題를 討議키로 되엇다 勿論이로써 問題가 終局的으로 圓滿解決된것이아니므로 今後에 如何히 進展될는지 注目되나 一時急迫을 解하면 危機는 一旦 解消되엇다고 할수잇슬것이다。

### 蘇中兩國接近說

共軍의 山西侵入과함께 又復 蘇中密約說이 돈다。中國에 어떤 問題가 잇슬때마다 白晝幽靈과가티 나오는것은 蘇中密約說이다 그러나 아즉도 實現되어본적이 업다。以來蘇聯가 中國의 목은 外交策이오 容共對策은 中國人政治家의 腦裡를 幻影가티 한번식은 지나갓을것이다。그러나 可能性이 잇슬것가티보이면서도 그것이 업든것은 이것이다。密約은 密約이어든 알길이 잇스랴? 보고모로프가 國府와 折衝中이오 陳果夫가 入蘇 監活動中이라고 傳하니 眞相을 알길이 업거니와 그보다도 共軍의 山西侵入이 蘇聯의 使嗾이라고보고 또 이것이 北中進出과 日本의 對中 積極策을 牽制하려는 意圖라고보는同時에 이는 滿洲國의 安危에 及하는 問題라고 實觀하면서 共軍의 動向을보아 共軍이 河北을 엿볼時에는 斷乎 自衛權을 發動하려고 決意한 日本陸軍中央部의 態度와 아울러 今後 進展은 深히 注目된다。蘇滿、蒙國境 問題와 아울러 東亞의 二大問題이다。

# 中立聯盟國反對로 理事會難關逢着
## 西班牙瑞西和蘭丁抹瑞典等會議結果
## 聯盟當局前途悲觀

【倫敦二十一日發同盟】理事會再開를 압두고 所謂 中立聯盟國인 西班牙 瑞西 和蘭 丁抹 瑞典等 五個國代表는二十一日午前 웨스트엔드호텔에서 會議를 開催하고 丁抹代表司會下에 로카르노會議新協定案에 關하야 檢討를 加하얏다 會議의結果 意外에도 五個國代表는 모다 新協定을 理事會의 記錄에 남기는것을 反對한다는 旨의 意見一致를 보앗다고 解釋되어 新協定案成立을마저 理事會는 新難關에 逢着하게되엇다 一方 獨逸政府는 로카르노會議에 對하야 아즉 아모런 回答을發하지안코 따라서 理事會의 議事手續까지 正式으로 決定치안한 形便이다 이때문에 倫敦滯在中인 各理事國代表는 二十一日夜에 至하기까지 協議를 거듭햇스나 아모런 局面打開도 하지 못하엿다고 보인다 그래서 聯盟側에서도 理事會의 前途를자못憂慮하고 今後의進展如何로는 二十三日의 理事會는 延期할밧게업시 될는지도 모른다고 悲觀的 觀測을 내리고잇다

### 故齋藤內府追悼會 宇垣總督弔詞要旨

故齋藤內府追悼會는 二十二日午前十時半부터 京城府民館에서擧行하엿는데 宇垣總督의弔詞는如左하다

故內大臣海軍大將從一位大勳位功二級子爵齋藤實閣下 國葬의式이 今日帝都에서 擧行됨에當하야 이에朝鮮官民有志相催코 追悼會를修하고 삼가 英靈前에 哀悼의辭를 捧呈함

閣下 일즉 海軍에身을 起하야 日淸 日露兩戰役을 經하고 爾來或은 海軍大臣으로서 或은朝鮮總督으로서 다시總理大臣、內大臣으로서 實로 明治、大正、昭和의 三朝에 歷任하야 武功文勳이 만혓다 不幸히 過般帝都에發生한 不祥事件의 犧牲으로서 薨去하엿다 痛惜不已하다

大正八年、閣下가 第三代朝鮮總督으로서 半島統治의任에 蒞한後 閣下의 在任前後二回、十一年餘、德化治洽하야 統治의 眼目거히 이동안이 整備되야 庶政의 更張잠으로 集指할수업다、至今은 民庶의 康寧福祉 매우 前進하야 閣下啓沃의 偉功을 追想하는念 더욱 만흔때에 不意變에 依하야 一旦의急逝에會하엿다 嗚呼 閣下의天資英邁、重厚、溫和의 巨材이엇다 一代德業、至今은 倏忽히 幽明을隔하야 다시永久히其溫容慈言에 接할수업다 悲哉 이에 追慕仰上慶하야 弔한다 在天의英靈 願하건데 와서照饗하라

朝鮮總督 宇垣 一成

# 獨佛關係對處次 伊墺匈三國會談

무솔리니伊首相

슈슈닉墺首相

겜베스匈首相

【羅馬二十一日發同盟】伊太利、墺太利、匈牙利三國會議는 二十一日午前十時十五分 伊代表무솔리니首相、匈牙利代表 겜베스首相、墺太利代表 슈슈닉首相出席下에開會되엿다 會議는 前後四十五分으로 午前十一時 一旦散會하고 午後三時에再開하야 따늄諸國間의 政治的經濟的諸問題 及安全保障再組織問題를 中心으로 討議되엿는데就中 獨政府의 라인란드 進駐後의 歐洲新情勢에 關하야 相互意見交換을 遂하엿는데 會談은午前午後二回를通하야 最後的決定을 보지못하고 前後一時間十五分後 午後四時十五分에散會하엿다 二十二日午後다시續行할豫定이다

## 今日本紙四面

### 不再錄號外發行

本社에서는 二十二日朝 二、二六事件一部解禁으로 二面大의不再錄號外를發行하얏습니다

## 八面鋒

◇春分後첫公日 서울의日氣는 陰慘冷濕하야 明朗하여야할봄도 오는줄만본듯。

◇구저도봄、치워도봄이라고、노리러로、郊外로、사람의 발자최는 그래도옴긴다。

◇노는날 놀줄을알음은 文化人의生活哲學。

◇일할때와 놀때의 區別이업시 두리뭉수리로 지냄은 敗北者의生活。

◇만히일하지안코 잘놀기를바람은 게으른者의 허언스런所望。

◇우리도 놀기위하야 일을하자 남과가티 살자함은 곳 남의 놀때에 놀수잇는能力을 俱備하자함이아닐가。

## 日曜氣配

▲株式 當限의 取組重壓과 爛株에는 整理低의 嫌氣賣로 目前은 相當한 波瀾이 잇슬것으로보며 氣配小軟
大新 七七、五〇 東新 三九、七〇
鐘新 一四三、〇〇 日產 七七、七〇

▲期米 强硬하나 無材料로 市勢는 保勢의 域을 脫키難하다고보며 氣配不變

中央公論 四月特大号 本日発賣! 特價壹円

廣田内閣人及び動向
廣田内閣の存在理由……長谷川如是閑
廣田首相論……馬場恒吾
寺内陸相論……岩淵辰雄
永野海相論……伊藤正德

馬場藏相とその財政……小汀利得
拓相・青嵐居士の風貌……前田多門
川崎・前田・賴母木・島田……御手洗辰雄
潮内相と林法相……四方田義茂

新代議士に與ふるの書・清澤洌
日本人の童貞 (童貞は何日、如何にして興味ある調査) 安田德太郎
★ヒトラアの爆彈宣言・益田豐彥
★危機のヨーロッパ・美濃部亮吉
世界舞踊行脚……靑山圭男
職業野球展望……橋戶頑鐵
外蒙の實相……成田精雄
◆デモクラシーと議會・鈴木安藏
大陸旅行者・德富蘇峰
東京丸ビル五階 振替東京四三番 中央公論社

わが青春の記 長田幹彥
女優蘭育 (我國新劇史を彩る妖艶の秘められた生活描寫!) 邦枝完二
釣余談 幸田露伴
特に知識階級に告ぐ……(卷頭言)
◆文藝時評……正宗白鳥

街の人物評論 ・近衛文麿・大谷光瑞 ・香椎浩平・鳥木健作
「大菩薩峠」映畫化の眞相 (武田寅男)
(口繪)……小室翠雲
劇的名放送 吉本明光

湯淺内府と松平宮相 阿部眞之助
現代作家の社會意識……新明正道
闇!カード階級……木下仙
國内市場の狹隘性 平野義太郎
(短歌) 釋迢空 宇都野研 太田水穗

父を語る 本間雅晴 橋本欣五郎
(小說) アマカラ世界 里見弴
(小說) 梅香崎假館 井伏鱒二
(小說) 蒼白い亂 細田民樹
(小說) 枯葉 林芙美子
(小說) 南さんの戀人 豐島與志雄
菓子雜記帳 内田誠

★二月二十六日事件★
二・二六事件日誌 (事件の全貌一目瞭然! 再びは得難き貴重資料)……太田正孝
▼財政家としての高橋是淸翁……丸山鶴吉
▼噫!!齋藤さん……三島康夫
渡邊前總監と西新總監……土井晩翠
高橋大勳位を悼む 津村秀松 古川緣波 三浦環 丹羽文雄 高石眞五郎 清澤洌 麻生久 ささきふさ 片岡鐵兵 松村義一 池崎忠孝 松本烝治 堀承雲
二月二十六日!

流言蜚語 清水幾太郎
(詩) 中野重治
ソ聯の農業……岡崎次郎
春の鳥獸 黑田長禮
反亂罪と内亂罪・池田克
(杉山平助) 絶望と享樂
女刑務所異風景 尾後貫莊太郎
問題の帝展 谷川徹三
斷種法批判 木村龜二
財界利け者八人男 (野田豐)
現代ポーズ論……大宅壯一
支那の財政混亂……根岸佶
我ら何を爲すべきか 吾等は一兵卒・淺沼稻次郎 聲なき大衆の代辯者として・加藤勘十
無產黨の躍進 森戶辰男
(無產黨今次の驚異的躍進は抑々何を意味するか? 今の資本主義と疾風の如きファシズムの攻勢に直面して如何なる大衆の使命と時代に呼び掛けた! 學徒の熱論を讀め)

# 入學이냐 落第냐! 焦燥, 不安의 査定日

## 明日! 市內公普校 入學査定을 압두고

### 落第될 五千名은 어데로 갈까 市內各校準備에 忙殺

이십삼일! 드듸여 경성시내 각공립보통학교 입학사정일은 다처왓다 이날이 아말로 부내에잇는 일만여명 학령아동의 입학이되느냐 안되느냐하는 운명이 결정되는날이다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요구이요 그들로서의 첫길인 보통교육을 밧게되느냐 못되느냐하는 즉 그들일생에 가장 중대한 결과를매저줄 최후의 재단이내리는날이다 겨우 약오천명밧게 바들수업는곳에 일만여명이 드려가겟다고하니 아모리하여도 그반수는 반다시 떠러트려야되고 또 떠러저야할 운명에 처하여잇다 여섯살, 일곱살, 여덟살밧게 안된 그들의 천진란만한 어린것들에게 시험이란것이 당할일이냐? 그들은 면보통안의 「멘탈테스트」의 결과여하에 따라 웃게도되고 울게도되며 여하튼 반수인 오천명은 깃부게 날뛸것이요 남어지 반수인 오천명은 울고 슬퍼하여야만하게되엿다 부내 일만여명의 지원아동은 조금도용서업시 그들의 머리우에 내려질 재단인 입학사정을 압두고 불안과 공포에싸혀 어린가슴을 태우고잇고 이에따라 그들의 부모형제 가족들은 그들의 발발떨고잇는모양을보고 근심걱정하야 온 장안은 그야말로 입학난리로 물끌틋하고잇다 그러면 학교에선 어떠한방침미테 두아해중에 한아해는 뽑고 한안해는 떠러트리려는가?

## 健康과言語를 第一條件으로한다

### 教育者로서참아못할일이라고 齋洞公普校長 朴勝斗氏談

(사진은 박승두씨)

입학사정에관하야 시내재동공보교장(齋洞公普校長) 박승두(朴勝斗)씨는다음과가티말한다。

문, 해마다 이때이면 되푸리되는 일이지마는 금년에는 지원자가 수용정원의 배나되니 어떠한 방침으로 두아해중에서 한아해를 뽑게됩니까

답, 고사(考査)하는 방법의 구체적내용은 말슴드리기힘듭니다 다만 우리 학교 방침으로는 신체가 건강하나 약하냐하는것을 제일 중요히 보렵니다 아동이 몸이 건강하여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과도 잘 감당할터이고 그발육도 더 조와질것이니까 다른 조건보다도 먼저 그 아동의 체격과 발육, 영양관계를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학교의 학과를 배울만치 분명한가를 보렵니다 보통학교의 입학고사라는것은 중등학교의 입학시험과도 달러서 참으로할수업서 하는궁여지책(窮餘之策)에 불과한것인즉 별로다른 어려운것이야 무러볼수잇습니까 그리고 어련아해일이니 귀분관계로나또는 수집어하야 아는것도 못는말에 잘대답을안커나 또는 못하는 경우가 잇스니까。 자못 곤난한경우가만습니다

문 아동의 년령관계는 어떠케 고려하게됩니까?

답 년령문제에 대하여는될수잇는대로 나히만흔 아동부터수용하려 합니다 올에 드러가지못하게 나히를 먹게된 아동은 다른 조건만 상당하면 그아희를 번저 드리려합니다

론, 교육자로서 입학고사에 대한고심을 말슴해주십시요

답, 참으로 딱한일입니다 어린것들이 불안과 공포에 싸혀 기하는것도 딱한 일이지마는 모처럼 학교에 오겟다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잇는아해들은 그중에서 반수나 떠러트리게 되는것은교육자로서 참아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케할수 업스니 도리가 잇습니까

문, 이부교수제는 어떳습니까?

답 이부교수는 교수과목수가적은 선 입학년만이 부제로 하고 래년에는 어떠한 긴급대책을 강구하야 학교를 느리거나, 학급을 느리거나한다면 우선 이대책이라도 취하는것이 교육자로서는 조타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래년에 무슨 대책이 잇겟다는 보증이업는 이상 도저히 계속할수업는일입니다

고하면서 명일의 고사를압두고 고심하는빗을 뵈이고잇섯다

## 番號票부치고 九時登校하라 父兄들의注意할일

이십삼일 보통학교 입학사정에 관한 일반의주의사항은 다음과 갓다

가, 입학원서를 제출한사람은이십삼일 오전아홉시까지 반다시 보호자와함께 원서를제출한 학교에갈것

나, 학교에갈때에는 번호표를아동의가슴에 부치고갈것

다, 지원자배정에의하야 다른학교로 넘겻다는 통지바든학교로갈것

라, 점심을준비하여가지고갈것등이다

## 京城↔仁川間驛傳詳報 飜覆無常한混戰 遞信軍이기기까지 ◇各區間의個人戰績

京仁街途를 熱狂과興奮으로써뒤끌케한 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의 京城⇄仁川間驛傳競走는 二十一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앞 廣場을 出發點으로 白熱的人氣속에 擧行된바 昨報以後의 詳報는다음과가트며 初陣의 遞信局은 所要타임 四時間五十五分七秒로 萬雷의拍手와 感激속에 第六區走者柳長春君으로 榮譽의『테-프』를끈헛다 그리고 第五區까지 斷然 先頭를달리든 平壤팀은 力戰奮鬪도 헛되이 이번第二位를 占하엿고 光輝잇는 歷史와 傳統을 자랑하는養正軍에는 때아닌 秋風이떠돌아 第五區까지 十位로달리드니 最終走者 孫基禎君의 눈물겨운力走로 第六位에 列하게되엿스며 若冠第二高普軍은 鐵道、往十里의뒤를니어 第五位에進出하는好成績을거두엇다 處女出戰의平北 崇德學校軍은 第一區走者吳昌濬君의 快捷으로 意氣자못喜하스나 第二區부터 뒤떠러지기始作하야 明年을期約코 開城軍에 버금가는 第八位에떠러젓다 이제 이날의各區個人成績表를作成하면 다음과가다

◇寫眞 上은 優勝한 遞信軍 下는 決勝點에 드러오는 柳長春選手

### 京城⇄仁川間往復驛傳競走大會各區個人成績表

| 區間·順位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第一區 總督府 梧柳洞 | (崇德)吳昌濬 | (平壤)文允善 | (二高)金道樞 | (開城)閔成基 | (遞信)邊天幸 | (白馬)金斗仁 | (培材)納明照 | (仁川俱)尹洪九 | (仁川)[illegible] | (鐵道)李敏弘 | (養正)崔谷杰 | (往十里)閔和植 |
| 第二區 梧柳洞 富平 | (鐵道)崔俊根 | (遞信)朝倉 | (往十里)金丙天 | (仁川)鄭福永 | (開城)韓萬[illegible] | (平壤)朴陽守 | (白馬)方壽奉 | (養正)李基萬 | (崇德)朴泰弘 | (培材)朴春培 | (仁川俱)林冰澤 | (二高)金基豊 |
| 第三區 富平 上仁川 | (遞信)李振興 | (平壤)李永煥 | (往十里)金浴勳 | (鐵道)三好 | (開城)李承濬 | (二高)金赫鎭 | (養正)柳海鎰 | (白馬)崔甲成 | (培材)朴庚鎬 | (仁川)李聖範 | (崇德)李東奭 | (仁川俱)李基[illegible] |
| 第四區 上仁川 富平 | (開城)吳龍成 | (崇德)劉會興 | (遞信)閔泳星 | (仁川)池元奎 | (平壤)洪平 | (二高)權赫世 | (白馬)朴利用 | (往十里)李聖順 | (培材)權泰利 | (鐵道)陳敬寬 | (仁川俱)黃龍德 | (養正)趙世元 |
| 第五區 富平 梧柳洞 | (往十里)曹季龍 | (平壤)尹光鎬 | (開城)張春興 | (二高)洪顯文 | (鐵道)金周湖 | (遞信)裵俊煥 | (養正)尹五龍 | (崇德)林伍律 | (培材)金麟淵 | (白馬)金三星 | (仁川)李齊先 | (仁川俱)金允童 |
| 第六區 梧柳洞 決勝點 | (遞信)柳長春 | (養正)孫基禎 | (鐵道)吳東祐 | (平壤)金德淳 | (仁川)李安淑 | (二高)李泰遇 | (白馬)金在八 | (崇德)池永龍 | (開城)張市鋼 | (往十里)安三鎬 | (培材)孫晩植 | (仁川俱)秉[illegible] |
| 往復路타임 | 遞信 | 平壤 | 鐵道 | 往十里 | 二高 | 養正 | 開城 | 崇德 | 白馬 | 仁川 | 培材 | |

## 朝鮮拳鬪代表三君 四月一日再次渡東

全朝鮮아마츄어拳鬪聯盟理事會는 二十一日午後五時부터 同聯盟事務所에서 會長兪億兼氏司會로 열리어 東京遠征軍監督尹鏸應氏의 會計報告가잇슨後 來四月八日東京서열릴 世界올림픽拳鬪豫選決勝戰에는 金亨中(朝拳) 崔龍德(養正) 李奎煥(朝拳)三選手와 引率者로 尹鏸應 李惠濬兩氏를派遣하기로內定되엿스며 出征期는 四月一日(午後十時五分)이라한다

## 春季럭비리ー그戰績

春季럭비리ー그戰… 第八、九兩日間의 總督府對鐵道局(二十日)戰은 三十六對零으로 鐵道軍大勝하엿스며 二十一日의 京商對京城럭비戰은 九對八로 京商軍惜敗하엿고 普專對養正戰은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普專軍快勝하엿다

普成專門 26 (8:0 18:3) 3 養正高普

## 朝鮮아잘잇거라 昨日尹博士出發

### 各界人士가多數餞送裡通過 感激에싸인京城驛

◇……京城驛을 通過하는 尹博士와 同夫人

안식년으로 이번에 귀국의 길에 오른 전숭실전문학교, 숭실중학교 교장 윤산온(尹山溫)박사는 그의 부인과 함께 이십일일 오후두시오십분 『노조미』로 경성역을 통과하엿는데 역두에는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의 명사 백여명이 나와서 갓다가 약일년만에 다시 도라올 길이지마는 박사부처의 가는길을 몹시나 앳겨마지안하엿다 삼십년동안이나 조선을위하야 몸을바친박사는 륙장한 조선말로 일일이 고맙다는말과함께 구든악수로써 다시만날날을 기약하엿다 박사부처는 이십팔일횡빈(橫濱)을 떠나는배로 고국을 향하리라는데 약일년후에 조선에 다시 도라오겟다고 작별을 액기는기자에게 그는확언하엿다 무사히 다시우리땅에 도라와우리를위하야 여생을 바처주서지이다

## 平壤驛頭엔 萬歲聲裡이震動

### 崇實學生等多數餞送

【平壤】『조선형제여잘잇거라 단녀오리라』하고 감개무량한가운데 숭실전문학교(崇專)전교장 윤산온(尹山溫)박사와 그부인은 이십일일 오전열시이십분발 『노조미』로 귀국의길에올랏다 역두에는 수십명의 선교단을 위시하여 숭전, 숭실생도수백명과 교우수백명이 정성드리하여 전송햇다 숭전, 숭실생도들이 우렁차게 부르는 『모란봉과 대동강을 노래하는 교가(校歌)』를 부를때에 박사 부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을 발견하게 되엿고 생도 들과 교도 들의 눈에도 눈물이어리어 떠나는 박사부부 떠나보내는 이땅의사람들이모라 무엇이라고 형언할수업는극적광경을잠시동안전개햇다

## 連絡船을新造 流線快速船 明春五月부터就航

【東京電話同盟】철도성(鐵道省)은 삼등침대 이백명 장거리려행의 자랑거리인 류선쾌속(流線快速)의 관부련락용신선은 마츰내 오는오월이십사일 장긔삼릉조선소(長崎三菱造船所)에서 진수식(進水式)을 거행하기로 결정되엿스며 이어서 제이선도 지난삼월구일 긔공식(起工式)을하고 래년봄에는 관부항로에 그 스마ー트한 자태를 떠우기로되엿다 이신선은 공비삼백만원으로 총톤수 칠천톤 승객정원은 이등침대 이백명 일천칠백명으로 현재취항하고잇는 경복환(慶福丸)의 약이배나되는큰것으로 배길이는 일백사십삼메돌, 선폭은 십칠메돌오십센치 속력도 최고시속 이십삼절(節)노로 일본제일의 초쾌속을 자랑하는것이다 그리고실내의설비도 선미를 다 가추워일대해상 『호텔』이 출현하게되엿다

## 라듸오技術員講習

『라듸오』가정청취 보급됨에따러 그기술자를 양성할필요가잇서서 시내봉래정(蓬萊町)에 조선라듸오기술강습원』이 창설되엿다 개학기일은 오는사월십일부터이며 모집정원은 삼십명인데 강습기한은 일년이다

## 平北女高普에 寄附金續續還至

### 벌서十萬圓을突破

【新義州】평안북도 다년의현안이던 평북여자고등보통학교는 방금마대의 준비가 착착진행되여 금년사월 부터는 개교를할예정이던 그러나 아직 긔부금이 완료되지못하야 인가수속을 제출치못하고 잇다한다 위원들이 열성활동한 결과 약오만원이 수합되고 아직 일만원이 불분되매 각군부채임액 사만오천원에 드리와다 이중으로 연장계속하야 드리오기로되엿든데 지난 이십일에 드러온 의연금은 다음과같다

| | |
|---|---|
| 泰川郡 | 一八六圓七五 |
| 鐵山郡 | 四〇〇、〇〇 |
| 昌城郡 | 三七〇、〇〇 |
| 楚山郡 | 九七〇、〇〇 |

그리하야 지난이십일까지 긔부금액을 완료한 군은 義州、宣川、江界、厚昌、龜城、渭原、朔州、熙川、龍川、碧潼、雲山、寧邊、博川、鐵山、昌城、楚山의열곳이고 그리고 미완료된곳은 泰川 등의열군이오 아직 완료되지못한곳은 각군부에 배당액의 충수는 각군부에 일만여원 남어지 일만원때문에 시일이 지연된다한다

産婦人科 醫學士 李麟杰

## 시어머니꾸지람 듯고少婦飮毒

시외 신설리(新設里)일백삼십이번지의심호 윤희명(尹喜明)의처 원옥히(元玉姬)(二○)는 이십이일 아츰여섯시경 양재물을먹고 자살하려는것을 곳부민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생명에는 별반관계업스리라하는데 이제 그원인은 그전날밤 사소한것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꾸지람을한것을 나어린 며누리가 비관하고 그와가튼 처사를한 모양갓다한다

## 荷物車가 小兒轢殺

### 작일태평동서

이십이일 오후네시경 시내봉래정(蓬萊町)조일조(朝日組)마차에 철재(鐵材)를 갈득싯고 서계동(西界洞)삼십육번지 김천복(金天福)(三六)이 태평통(太平通)으로 몰고 가다가 삼국(三國)택시ー압헤서 놀고잇든 북미창정(北米倉町)오십오번지 차선안(車善安)의 둘재아들 건호(建浩)(三)와충돌되여 그만두개골이 바사저 즉사하엿다는데 가해자는 방금본정서(本町署)에서 과실치사혐의로 취조중이라한다

## 米國에大洪水 死者百八十名

【華盛頓二十日發電通】미국(米國)동부 제주의 대홍수(大洪水)피해는 오늘까지에 판명된것만도 사자(死者) 일백팔십일명에 행방불명자 수백명에 달할 모양으로 이번 수해(水害)에 삼십오만인이상이 집을 트실코 오십만명이 직업을 일흔 참상을 내엿스며 여러지방의 피해총액은 이십일까지에 나타난것만도 삼억오천만불(弗)에 달하는바 세세한피해이 나타날때는 오억불(五億弗)을 돌파하리라한다

## 軌道車에火災

이십이일 오전열한시경에 시외마장리(馬場里)궤도차(軌道車)정륙장에서 광장리(廣壯里)로부터 동대문(東大門)을향하야 오든리한태(李漢泰)가 운전하던 십사호 궤도차의 『깨소링·파이프』가 끈허지며 불이 이러나서 승객에 소동을하엿스나 다행히 아모피해가업섯스며 차체의 손해도 적엇다고한다

松の實キヤラメル

補精強壯劑 海狗腎
樺太廳官營採取 眞品
請求次第說明書進呈
釜山府草梁町三二二ノ三
台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二一二二番·振替釜山七九二二番

## 中等校合格者

### 京城公立職業學校

高修科入學許可

(自動車科)
白彩五 梁泰麟 姜中秀 李康龍
李振九 李珞稷 朴炳燦 閔載稷
李容復 黃豪益 李仲均 李 燧
崔承奉 金龍鎭 閔敬植 朴武東
李德煥 康永熙 胡鎭奎 韓興業
李鋼植 金濟鎬 (以上二十二名)

(理髮科)
姜鋼世 金鎭泰 金宗植 李台杓
金昌煥 金東文 李承鎬 金履甲
金性根 李炳量 (以上十名)

(時計科)
金榮基 崔再先 李應承 吳重輝
張東逸 許璽 李漢榮 金東輪
閔伯植 (以上九名)

### 講習科入學許可

(塗工科)
李奭雨 崔承鳳 金正銑 趙萬說
李圭琬 陳敎銑 李海德 李再鎔 (以上八名)

(指物科)
秋雨熙 李起順 金在京 洪鍾根
鄭承大 朴永畐 (以上六名)

(挽物科)
羅乙成 南良祐 李成道 金敎奭
金榮喆 元容斌 (以上六名)

## 天氣豫報

低氣壓은 北滿에 七五八미리, 九州南西海峽에 七六四미리를 表示하고 高氣壓은 揚子江流域七六八, 樺太島方面은 七二二미리를 表示하고 朝鮮은 其 中間에 잇다。南朝鮮과 日本內地는 모다 흐리나 太平洋沿岸은 맑다。

▲豫報 今夜는 흐리다。明日도 흐리다。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五度二 最低 零下一度九

今朝 零下一度八

今日 正午 二度六

## 空中飛行을하면서 陸上에"여보세요"

### 空陸連絡의短波無電을計畫 今年부터各地에着工

【東京電話同盟】우긔(雨期)의항공안전과 긔상(氣上)급 륙상(陸上)의 통신련락과 항공긔상 무전시설은 목전의긴급을요함으로 되여잇는바 일본에서는 아직이 지상의 단파장항공 전용무전국이 업슴으로 항공무전(航空無電)국(局)이 업슴으로 항공무전의 충분한 발달을 보지못하는 현상임으로 체신성국에서 소화십일년, 십이량년도에 일본주(本州)북해도(北海道)구주(九州)조선(朝鮮)의 열곳에 단파장(短波長)에의한 항공무전국 개설계획을세워 십일년도 예산의통과를보아 곳설치에착수하기로 되엿는바 이완비에따라 비행중의 항공긔로부터 자긔장의 전령를 차지내여 말이 통하게될 날도 머지안흔 장래로 예상되여 적지안흔 긔대를 가지고 잇다한다

本劑推奬한諸名士 (가나다順)

京城醫專講師 醫學博士 姜日永 先生
橋本産婦人科 醫學博士 橋本吉藏 先生
醫學士 金能基 先生
醫學士 金柱憲 先生
京城藥專敎授 藥學士 都逢涉 先生
京城世專講師 醫學士 李世珪 先生
醫學士 李義植 先生
京城醫專助敎授 申館均 先生
京城醫專講師 醫學博士 申聲雨 先生
醫學博士 尹治衡 先生
京城府立醫院 産婦人科長 尹泰權 先生
頭山滿 先生
代議士 荒川五郞 先生
子爵 李埼鎔 先生
男爵 趙重獻 先生

急告

弊社에서 『補血強壯劑 蔘茸토닉』을創製發賣한지不過幾月에京城府立病院을 爲始하야 權威잇는 諸官私立 病院에 御用命을 受하게된것은 朝鮮醫學界를爲하야 痛快한일인줄압니다 그리고 外國廣東、싱가폴、港、南洋等地의 著名한 病院으로부터 注文이 殺到함은 本劑의 偉大한効力을 推薦함에 足할줄압니다 本劑가 朝鮮에잇서 五百瓦 一瓶에 五圓으로 販賣하고잇스나 外國에限해서는 同樣品에 五百瓦에 十五圓 定價로 發賣하고잇스나 外國人으로 服藥하여본이는 十五圓도 오히려 廉價이라고 깃버하는 傾向입니다

本劑의 表記適應症을 疑心하야 그러케여러가지病에 듯느냐고하는質問을 밧는수잇스나 그것은 實로 權威잇는 各科의 專門先生의 臨床實驗이 잇사오니 安心하십시요 오히려 그밧게도 諸種病에 效果잇스나 便宜上 省略하고 主効만을 記한것입니다

本劑는 一般營養劑라는 그宣傳方式(誇大廣告 虛僞廣告를 絶對로避함)과 販賣態度(現金과代金引換販賣만을應함)을 달니하엿사오니 充分히 惠察하시와 廣告主義藥에 놀나지마시고 藥은 効力第一主義로 아시고 用命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本劑와 類似名을가진 營養劑가 多數인故로『蔘茸トニク慈善堂製藥株式會社』十四字의글이 表紙에 一字라도다르면 他品인줄 認定하십시요 不正藥局의 甘言利說에 迷惑하야 從從 類似藥을 使用하시고 本劑가 効力업다는분이 잇습니다 또 類似名을 가젓다고 効能도 同樣일줄 推側하신분도 잇는모양이나 決斷코 內容에잇서 本劑는 成分과 製造法이 獨創的이요 他品의追從을 不許하노니 惠察하시와 一瓶만을 꼭 試用하시고 批判하여주심을 切望하나이다

本劑의特長

慈善堂製藥株式會社研究部 敬白

一、一般補劑는 人體의一部分에만 各各其効力을 奏하나 本劑의 原料 人蔘、鹿茸、淫羊藿 三者와 삐타민A、B、C、D、E、鐵、구와야꼴、等의 綜合作用은 實로 體內諸器官 各組織에 作用하야 萬病에 効力잇다고 할수잇스며 諸種病에 各專門醫에 實驗報告가 잇습니다

二、一般補劑는 長期間服用하여야되나『蔘茸토닉』은 五百구람 一瓶을 服用하야도 氣分爽快하고 無病한 사람도 本劑를 服用하면 여름을 타지안코 脚氣를 豫防하고 어두운데서 일하는사람에게는日光의 紫外線과가튼 作用을하야 健康을保持하며 宿醉에도 絶効하여 一一히 本劑의 保健作用을 記錄키 어렵습니다

三、本劑는 湯藥으로 人蔘十斤을 服用하기보다 本劑一瓶을服用함이 有効한것은 動物試驗에 判明되여잇습니다 本劑는莫大한研究費로 漢方劑의有効成分만을 빼내는데 成功하엿고 湯藥을 만들때 高熱때문에 分解되는成分도 그全部를 抽出하엿습니다

四、一般補劑는 苦味인것이 普通이나『蔘茸토닉』은 美味이고 人蔘香이 强烈하야 老人 小兒도깃버 服用한다

主治 衰弱腺病質의人、貧血及萎黃症의人、手術後貧血의人、陰萎、早漏、夢泄等의生殖器衰弱의人、神經衰弱의人、虛弱姙婦、産後衰弱의人、一般子宮病及ヒステリ의婦人、消化機能不良의人、食慾不振의人、虛弱乳兒、發育不振의小兒、衰弱老人、肺結核(不足症)、眼精疲勞、心臟衰弱、心悸亢進、重病後耳鳴

藥價 五百瓦入(約一個月分)五圓 二百五十瓦入(半個月分)二圓八十錢

京城鍾路三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詳細說明書無代進呈)

代理店 京城本町四丁目 木村藥房 振替京城五〇七〇番 電話本局(2)一九一二 私書函京城光化門二四七五

# 소년조선일보

## 엇재서 꿈이꾸이나

박 선 생

꿈이란것은 대체로 엇더케꾸여지는것인가를 한번 알어봅시다 여러분중에서도 늘 꿈꾸는것을 생각해보면 별별 이상한꿈을 다꾸지안엇습니까

그러나 꿈꾸는 이야기를하자면 먼저 잠자는 이야기를 하지안하면 안되겟습니다 누구나 물론하고 잠을 자지안코는 꿈을꿀수가 업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잠이들면 아모것도 모르지안습니까? 이것은 다름이아니라 볼때 우리가 무엇을 듯고 보고 생각하고하는 대뇌피농(大腦機能)이라는것이 전부 쉬는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몹시 피곤하다가도 한잠자고 나면 몸이가볍지안습니까? 이것은 대뇌피농이 쉬는때문에 아모것도듯지도안코 보지도안코 생각지도안는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을잘때라도 아주잠이깁히드러서 전연아모것도 모르고자는수도잇지마는 엇던때는 경해서 짓거리는소리를 어슴푸례하게 드르며 자는수도 잇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자는수도잇습니다. 이것은 대뇌피농이 완전히 쉬는 때와 완전히 쉬지못하는때가 잇는 때문이니 꿈을 꾼다는것은 이대뇌신경이완전히 쉬지못하는때입니다.

흔히 꿈도아니고 생시도아니라는말을하지마는 꿈이라는것은 실상 잠도아니고 생시도 아닌 그런것입니다.

그럼으로 꿈을꾸어보면 생시에는 생각하지도못하든일을 엄마라도 당합니다. 가령 죽은사람을만나서도 예상스럽게 이야기도하고 외가시집이나 다른데 멀니 떠나와잇스면서도 집에가서 노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엇던때는 생시와가티 오줌을눈다고 한참 누다가보면 요이부자리가 척척하도록 오줌을 쌋다던지 놉흔 언덕에 올나갓다가 그만 잘못해서 몃길이나되는 벼랑에 뚝 떠러지는바람에 으악소리를 치고나면 잠이깨이기도합니다. 이것은 다름아니라 대뇌피농이 반은쉬고반은쉬지안는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별별 이상한 꿈을 꾸엇다고하드래도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상은 늘 마음속에 잇든일을 꾸게되는것입니다. 가령 나제 동모들과싸홈을하다가 젓스면 흔히 밤에 그싸홈하든 꿈을꾸게되며 보통때 공부를 잘못하면 흔히 선생님께 벌쓰는 꿈을꾸게됩니다

그런데 만약 꿈을꾸지안흐려면 너무 몸을 피곤하게하지안커나 자기전에 군것질하지안는것이 매우 좃습니다.

## 萬國서울구경

### 포도아서울 리스본

서반아에서 다시 서편으로 포도아라는 나라가 잇지. 그나라의 서울은 리스본이라나. 리스본은 페니키아말로 상쾌한 항구의 뜻이라는데 과연 그이름과가티 상쾌한 항구 갓다

가 어찌나 넓은지 전세계의군함을 다 몰아다가 띄워도 띄울수가 잇단다. 그러나 리스본시로 말하면 꾸불텅 꾸불텅한언덕과 비탈로되야 아조 편편하지 못하다. 그러키때문에 전차길도 어느때는 구름다리우에다 맨들어 노코 승강긔로다가 나린다고 나리는 사람을 바다나른다. 녯날 포도아가 들날닐때쯤 그서울을 오작 잘꾸미어 노핫겟나만은 지금으로부터 한사백년전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문허지고 깨어젓단다. 간간이 요행으로 남아잇는 건물이나 장식들이 업지 안 하야 지나는 손으로하야금 그래도 녯서울의 회포를 느끼게 한다. 리스본시에서 유명한곳말이냐? 첫재는 카모엔스광장이지 그것은 불행한 운명아래 허대와고생으로 인생을 마친 중세긔때의 그나라시인(詩人) 카모엔스를 긔념해 맨든것이야. 또 어듸냐고? 둘째는 제로니모 수도원(修道院)과 베렘섬이지. 둘다 인도항로를 발견한 긔념으로 건축한것인데 그 수도원에는 력대임금의 능이라든지 또는 카모엔스의 모이가 잇는곳이요 그섬은 일시 정치범인의옥으로 쓰든곳이야. 그이외에도 네세스다데스궁, 아쥬다궁, 베렘궁의 세대궐도 모다유명하단다. 산·뷔센데절은 근천년된 고적으로서 한번구경할즉하나 실상은 그리보잘것이 업더라.

## 오리의목숨살린 윤회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삼사백년전 윤회(尹淮)란 어른이 게시엇다. 그 어른이 얼마나 무던하더라는 것은 이아래의 이야기를 듯더라도 잘 알수 잇슬것이다.

그가 아조젊엇슬시절 시골댁에서 볼일을보려고 서울로 올라오는 판이엇다 오다가 중로에서 해가 차차저무매 늬집에를들어가서 주인에게 청하고 하로밤을 자기로 하얏겟다 아즉도 땅검이 때라 그가 마당에서 거니는데 말도 잘못하는 주인의 아들 하나가 조흔 구실한개를 가지고 나와서 놀지안켓늬? 그리다가 마침 그아히가 그구실을 땅에 떨어트리자 여페잇든 오리란 놈이 조랏구나 꿀컥집어 삼키지를안늬?

조금뒤 주인네는 구실을 찻는다고 야단이나는 동시 윤회란 어른이 훔처갓다고 꼼짝업시 의심을 밧게쯤 되얏고나. 주인이 별욕을 다하며 관가에 다리고 가서 정장을 한다고 떠들어도 암말도 안하고 또 도망갈는지 모른다고 굴근바로 칭칭 묵거노하도 암말도 안하고 그저 저오리를 내아페 갓다노하주시요 그리고 내일아침까지만 기다려주시오 말할뿐이거든. 그래 그이튼날 아침에 어찌되얏느냐고 하면 오리똥에 무더 나온것을 쉽사리 차저내엇지 그러! 그제사 주인이 얼골이 벌개저서 고두백배사죄를 하면서 왜 진작말씀을안하셧습니까 고하니까 무죄한 오리를 죽이어 배를 가르고 찻는것 보담은 내가 좀 고생을 참는것이 낫지 안소 대답하얏단다.

## 코끼리코는 엇재 길어젓나

옛날에도 아주옛날 언제스적 옛날인지 모른지요. 작난꾸러기 코끼리애기가 잇섯습니다. 엇던 냇가에가서 악어를보고 무러지요

「악어님 악어님 당신은 밤에 무엇을잡수십니까」

그러니까 악어는 「코끼리도련님 그게그러케알고십소」하드니 눈을 딱부릅떠고 달려들어 코끼리의 코를 물고 느러젓습니다

「앗이 놔야놔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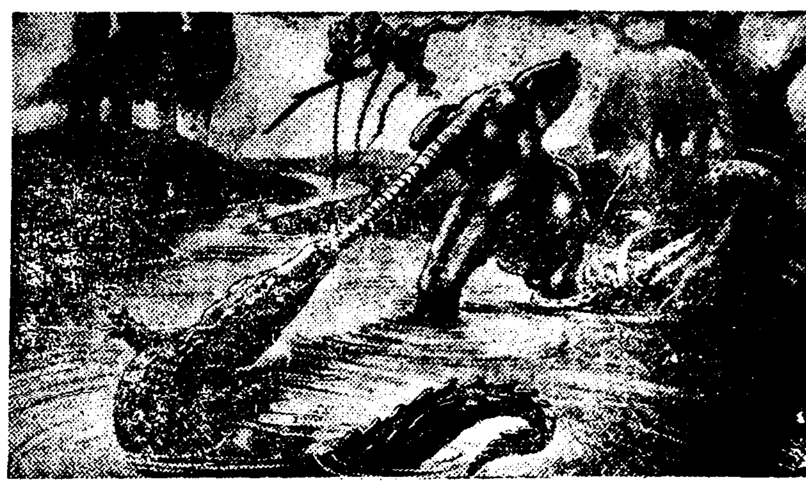
아이코야코야소리가 이러케 나왓지요—코가 [illegible]겟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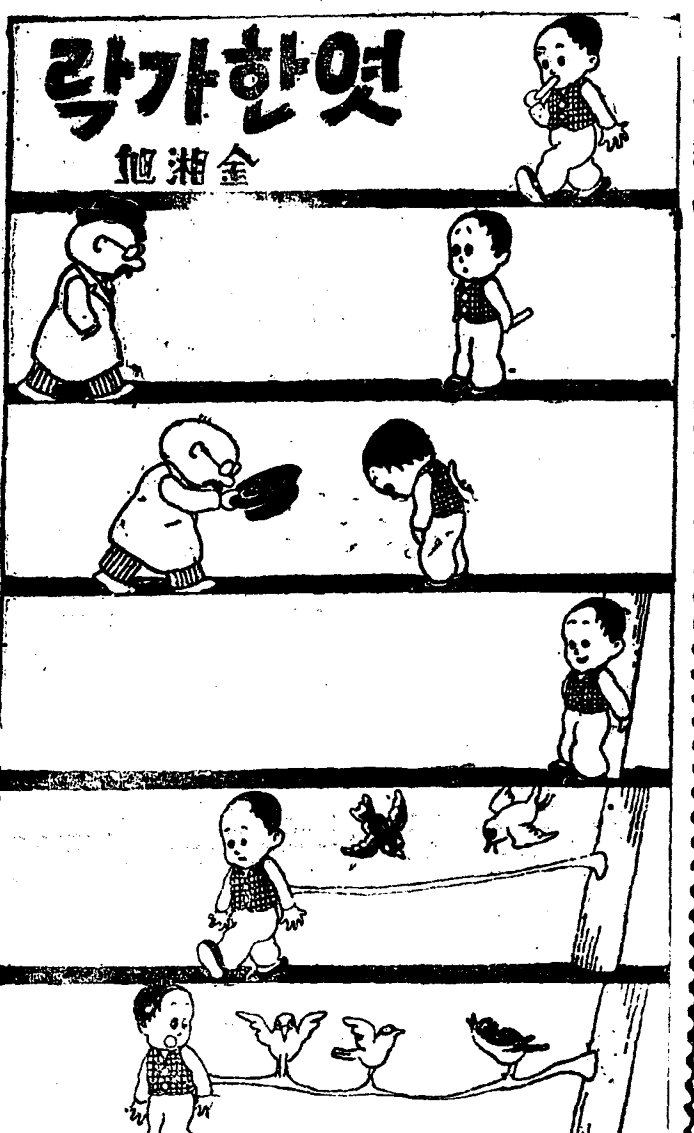
그때마침 코끼리가끙끙대는소리를듯고 나무우에잇든 큰구렁이가내려와서 코끼리를 구해주엇습니다. 코끼리는 간신히사랏다십허 집으로 도망질을첫습니다. 집에와서보니 다행히 끈허지지는안햇스되 고무관처럼 사뭇길다라케 느러낫습니다.

「어떠케 물고잡아다렷스면 이지경이됏슬까」

코끼리 남이부끄러워 견될수가 업지요. 그러나 얼마지나니까 코긴것이 여러가지일하기에 한껏 편리하거든요. 그러케되니까 그때는 코끼리마다 나도나도하고 냇가에가서 악어한테 코를 늘려가지고 도라왓습니다. 코끼리코는 그때부터 느러낫게에요.

이건 옛날얘기지만 코끼리코가 점점 길게된것은 결국 코를 중요하는때 만히써서 몃만년 몃십만년 내려오는동안에 발달이 되어지금처럼된것이겟지요. 거름마히는사람이 장딴지가 굵어지고 팔을 만히쓰는 사람이 팔에알이배어 울퉁불퉁해지는것과마찬가집니다. 코긴것이 일하기에편리햇지요. 그러니까 그코를 작구작구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될밧게잇습니까.






## 童話 진달래이야기

金 相 德

하날에는 힌구름이뜨고 땅에는봄풀이살섭혓습니다 종달새의 노래가 보리밧우에 들리고 개울가 버들가지에는 푸른옷을바구어입엇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꼿치 만발하야 붉게웃하고 산과들도 나물보구니를 엽헤끼고 헤매는 아가씨의모양이 보입니다.

김흔산골에「진달이」라고하는 소년이 잇섯습니다. 홀어머니를 뫼시고 외롭게외롭게 살고잇섯습니다.

어머님과가티 밧헤나가 일을하고 산에가 나무를해오고하야 겨우겨우 살고잇섯습니다 어느날이엿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단한분남어잇는 어머니마저 병환이드섯습니다

진달이는 어머님 병구완하랴 밧헤나가 일하랴 산에가서 나무하랴 그리고 읍내로 가서어머님 약지어오랴—밧부고 괴로운날을 보내고잇섯습니다.

그러나 진달이는어머님병환이 어서 나으시기만바라고 조곰도 괴로워하지안코 밤을 새워가며 지성것 병시중을들고잇섯습니다 석달하고 사흘동안—진달이는 하로밤도 못자고 어머니 병구완을하얏쓰나 진달이의 지극한 정성도 허사가되고 어머니는그여코 세상을떠나고말엇습니다.

진달이의 슬퍼하는모양은 참아 눈으로볼수업섯습니다. 수척한그의얼골에서 퍼부어나리는 눈물! 매듸매듸애끗는듯한 통곡소리는 온동리사람들의 옷깃을적시엿습니다.

진달이는 동리사람들의 도움으로 드리뒷산에다 산소를쓰고 어머니를 장사지냇습니다.

그리고는 산소압헤다 움집을짓고날마다 아침저녁 어머님산소에서 어머니가 살어게신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진지를 떠드리고 하얏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도라가신지 삼년째되는해봄에 그여코 진달이마저 세상을떠낫습니다.

쇠잔한몸으로 어머니산소를붓잡고 울음을 울다가 그대로죽은것입니다.

진달이의 죽엄을 동리사람들은 가엽게 생각하고 그의효성을 모다 칭찬하엿습니다. 그리고진달이를 그어머니 산소엽헤다무더주엇습니다.

진달이가 죽은후 해가여러번밧귀엿습니다. 가여운모자의 무덤에서이상한일이 생겻습니다. 진달이 어머님의 무덤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깟닥이업고 진달이무덤은 점점 비에씻겨저나갓습니다.

동리사람들은 그의무덤에흙을 싸아주엇쓰나 역시 씻겨지더니 그의무덤에 조고만나무가 자라나왓습니다.

그리고 봄이되니깐 새빨간피스빗꼿치 송이송이 맷처피엿습니다.

동리사람들은 이꼿을보고 이상히역히고모다 진달이꼿 진달래꼿이라고불럿습니다.

×

진달래 진달래 밝안 진달래
피지슴 안개속은 진달래나라

×

포근포근 파랑이를 고요히덥고
진달래는 조은다 진달래는꿈꾼다.

×

진달래 진달래 밝안 진달래
저녁해 너머간다 무섭지안늬

×

별이반짝 밤이란다 고요히쉬고
내일다시 우서라 내일다시피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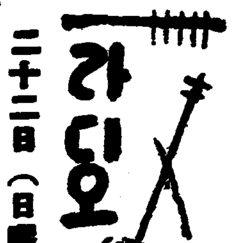
동무여러분 여러분은 이런노래를부르시면서 나무하러가실때나 나물캐러가실때 산비탈에 붉안 진달래꼿치 피여잇는것을보시거든 진달이를생각해주십시요

### 어부—바!

『어부바』는 어부바지만 어머니거북과 새기거북이아닙니다

큰거북은 남양 보르네오란섬에서나는 아주커—다란 사람만한거북이고 적은거북은 보통조선에서나는남생이종류지요

## 라디오



**二十二日 (日曜)**

◇午後六時 兒童劇 "卒業前날" 一幕—朴興民作及 演出— 京城童心會
◇同六時二〇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 "人心과道心" 張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라듸오放送開始日을當하야" 朝鮮放送協會理事 方 台 榮
◇同八時 流行歌 姜 弘 植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二五分 關山戎馬 一、關山戎馬 二、愁心歌 三、역금愁心歌 四、령변가 五、개성난봉가 金 順 紅 金 蘭 香
◇同八時四五分 라듸오、드라마 『無料治病術』 一場 —李無影 作— 劇藝術研究會 出演 柳 致 眞 效果 效 果 班
◇同九時三〇分 大東商業學校新入生發表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 唱劇調 一、短歌『不須嚬』 二、唱劇調『春香傳中』『礴石티』 鼓手 韓 成 俊 宋 萬 甲

**二十三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公堂問答』 申 淸 居
◇同三時一五分 通俗家事講座(一) 金 袂 帝
◇同六時 (大) 管絃樂
—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一、行進曲『우리(雷)』…스—기 作曲
二、描寫曲『自動車旅行』…빗드구—도作曲
三、圓舞曲『에스루듸안티나나』…발트토이펠作曲
四、描寫曲『急行列車』…부—에 作曲
大阪라듸오·오케스트라 指揮 福喜多鎭雄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洪 性 夏
◇同七時三〇分 講演 出版物과社會敎育 金 東 煥
◇同八時 오봉산外 一、오봉산 二、흥타령 三、사발가 四、에야뒤야 五、도라지타령 六、긴양아리랑 高 一 心 細笛 姜 龍 洙
◇同八時三〇分 箏琴 李 郞 善 獨唱 一、放浪의밤노래 二、蒼浪에서…介—버—트作曲 三、春草…介—망作曲 四、鬪人사공…民謠 五、二人의擲彈兵…介—만作曲 六、歌劇『搖籃』中에서…베르듸作曲 피아노伴奏 李 升 學
◇同九時 伽倻琴竝唱 一、短歌『大丈夫』 二、唱劇調『沈淸歌』中—沈淸이賤人따라가는때— 朴 秋 月 鼓手 池 龍 九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大)家庭講座
◇午後〇時〇五分(大)新日本音樂
◇同二時 (東)婦人體育講座
◇同六時 (大)管絃樂
◇同七時三〇分 (東)趣味講座
◇同八時 大衆演藝의밤 『歌謠曲』
◇同八時一〇分 二人漫談
◇同八時三五分 講談 落語歌謠曲
◇東八時三〇分 (東) 管絃樂 新交響樂團 指揮 齋藤 秀雄

**第一放送**

◇午前十時三〇分 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 義太夫
◇同一時 (東) 婦人時間
◇同六時 (仙) 童謠風景
◇同六時二五分 (東) 靑年時間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東) 歌謠曲
◇同八時二〇分 (東) 常磐津
◇同八時五〇分 (東) 管絃樂

**二十四日 (火曜)**

◇午後〇時〇五分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박이 三、興打令 四、개고리打令 曹 弄 仙 趙 素 玉 大笒 朴 鍾 基
◇同三時一五分 通俗家事講座(二) 金 袂 帝
◇同六時 이야기 尹 石 重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安 寅 植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一) 崔 南 善
◇同八時 歌曲 一、羽樂 二、羽調酒學 三、環界樂 四、界樂 五、編 金美花 崔明珠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古談 鴛女墳 車 靑 吾

**曆**

三月廿三日 (月)
三月[illegible]壬辰小(初一日)
甲辰·火·畢·除
●[illegible]上樑[illegible]安葬에宜함
●淸明四月五日(第十四日)
●穀雨四月二十日(第二十九日)

# 體力·精力 을爲하야

血液素—筋肉素—發育素—食慾素—活力素

이와갓치健康을爲하야身体에重要한各種「아미노」酸을豊富히包含한것이世界唯一의高級榮養劑ポリタミン(포리타민)이올시다。

「포리타민」은日本에서처음으로完成된生体榮養素「아미노」酸(消化蛋白)의綜合劑로一般榮養劑에比하야다음과갓흔特殊作用을가지고잇습니다。

**虛實이업시榮養이됨**
一般榮養劑의大多數는未消化性임으로胃腸이弱한사람에게는不適當합니다。그러나「포리타민」은消化의必要가업스며그대로吸收되야体成分(血·肉)이됩니다

**食慾을도음**
食慾과榮養은密接한關係가잇슴으로食慾을害하는榮養劑는소용이업습니다。이点에잇서「포리타민」은食慾을도으며또胃腸의消化力을旺盛케하고便通(뒤)을순하게합니다。

**「호르몬」의근원이됨**
体內諸機能을支配하는「호르몬」의몃가지가「포리타민」中의「아미노」酸으로構成되고잇습니다 이것은榮養劑中「포리타민」이가지고잇는가장큰特色의하나이올시다。

**身體의抵抗力을强하게함**
「포리타민」中의「아미노」酸은또人体細胞力을賦活하야呼吸器病等에걸니기쉬운体質을强化식힙니다。

官公私立大病院處方
四百五十餘名醫學博士推奬

# ポリタミン (포리타민)

全鮮知名藥店에서販賣함

小瓶(一五〇瓦) 一圓五五
中瓶(二五〇瓦) 二圓五〇
大瓶(五〇〇瓦) 四圓五〇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36—115(ポ)



三月十九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半
◆RKO라듸오超大作映畵
三銃士
알넥산더 듀마原作 로란드·뷔·리—監督 월터 아벨主演
邪正의劍을잡고俠男兒달다니안을 絕好에發揮된三銃士의痛快를 살리고 數코저民劍을쌔다、豪또한快! 創劍就! 世界大衆文學史上傑出한 大作의雄渾한興趣여!
◆RKO라듸오特作映畵
진자로자—스主演
로맨스의거리
체코의曠野에서希望의마당을얻은 靑春의血潮는뛰논다
◆日活超特作映畵
多情佛心
岡田嘉二、杉狂兒主演
全鮮第一 映畵殿堂 電光 九五 團成社

三月二十日부터 五日間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 續映七時始映
封切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유나이텟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結婚の夜
게리·쿠—빠—、 안나·스텐 主演 監督 킹·뷔이다
언덕도업는地平線끗업는드넓판을거러가는가엽슨아가씨!! 이것은코네치컷트의시골에서태여난겨울의哀詩!!
米國映畵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몬데이·빵그主演
몬데이의荒武者飛行
世界喜劇王몬데이는空中冒險亂舞와抱腹絶倒의大喜活劇!!
松竹키네마超特作 監督 小津安二郎
稻入娘
主演 田中絹代
次週—海戰劇 海國의榮譽 라는海戰劇 鬼神을울님 활다스公主同時封切
次次週—霧に立つ影、 次次次週 野性の叫びを期待

仁寺洞 (電光三[illegible]) 朝鮮劇場
十九日ヨリ五日間特別封切大公開 入場料 階上 大人五〇 學生三〇 階下 均一
一日二回晝十二時半、夜六時半始
一、パラマウント特作發聲日本版 新說探偵映畵 ガラスの鍵 フランク·タットル監督 ジョージ·ラフト主演
二、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文豪……牧逸馬先生最後の絶筆 都會の怪異七時〇三分 木村莊十二監督、中野英二、丸山定夫、千葉早智子、嵯峨善兵主演
三、東日大每國際ニュース一三六
四、パラマウト本年度超大作 壯絶悲愴 雄大果敢 最後の駐屯兵 チャールス·バートス監督 ゲーリイ·グラント ガートルド·マイケル ロード·レインズ主演 名詩『ベンガルの槍騎』を遙かに凌ぐ感激と昂奮の名作!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三五四番
三日廿日날부터三日間特別公開 特選名畵當番히上映
P·C·L社超特作全發聲 山本嘉次郎監督
いたずら小僧
伊東薫 藤原釜足 英百合子 主演
憧憬과夢想으로無窮한童心을한우리少年時代! 作亂軍大將! 선모군大將그時節! [illegible] 유—모아小說家의元祖佐佐木邦氏原作인家庭小說을映畵化한微笑의家庭劇!! P·C·L娘子群의活躍할名篇!!
猛烈活劇 猛火의決鬪
大學生의스포—쓰
鍾路四丁目 電光[illegible]番 第一劇場

# 長津水電所有地內 二百戶窮民에 撤去令

## 四月一日의 急迫한 期限付로 千餘住民은 所向無處

【長津】장진수전회사에서는 제이기언제공사를 압두고 동회사 소유지안에 거주하는 이백호호 기한부로 사월십일까지 가옥이 전을 언명하여 관계주민은 일대공포를 늣기고잇다는데 이제 그자세한것을 들어보면 동회사에서 제일기언제공사를 처음시작할때 돈버리 조탄는말을들은 전조선각지에서 업는사람들은 자기들에 전재산을 다털어가지고 남부여대로 생활에길을 차저 이공사장으로 모이게되엿스나 거처할 곳이 업서 전기회사소유지안에 조건부로서 땅을 쓰는때에는 협부하게 하고 가옥을 건축하여 이래 수년동안을 지내오며 이 공사장에서 품팔이로 그날그날 겨우 련명하여 지내왓스나 일긔공사를 완성하고 이긔공사를 착수한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에는 별로 공사도 완전히 하지안흐므로 품팔이조차 떠러저 이 겨울동안은 호구할길조차 업서 문전걸식과 초근목피로 연명하여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한다 이와가티 처참한 생활속에서 업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동회사로부터 전긔와가튼 최후의 선고가 나려게 되매 이백호 천여 주민은 다만 엇지할줄을 모르고 당황망조할 뿐이라하며 이네들의 압길이야 말로 실노 비절참절한 구렁에서 허매이지안흘수 업는상태에처하고 잇다한다

### 關係住民鄭某 談

조건부로 회사땅에 집을지은 이상 회사로부터 공사를위해서 땅을쓰겟스니 가옥을이전하라는 데 잇서서는 우리관계주민이백호는 이전해드리는것이 당연한 줄압니다 그래서 이전할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방금 먹을것과 입을것이업서 주리고 떨고 하는 처지에서 그저마음뿐이지요 아모계책이업습니다 살엇혀 라도 옮겨다 고처지을 생각도하지만 첫재로 먹을것이나 잇서도 조켓는데 초근목피로 삼순구식하나 달지안흔 생활속에서 그저 불가능할뿐 이옵시다 차라리 우리가튼 사람들은 하로밧비 죽어서 온갓괴로움을밧지안헛스면 오히려 행복이 될것가튼생각만 련멸날뿐이옵시다 운운

# 舊市街多年懸案 人道橋促進運動

## 舊市街側有志들이 蹶起하야 大會를開催對策講究

【平壤】대동강중앙에 놋코 무서운형세로 팽창해지고 잇는 대평양에 신시가측에 인도교한개가 잇슬뿐이서 폭주하는 교통량을 정리할수업슬뿐안이라 구시가주민으로서는 현재의 연도교인 대동교(大同橋)를 리용하기에 심히 곤난한점이 업지 안어서 구시가에 제이인도교를 가설하라는 소래는 십수년여래의 부르지짐이며 평양중대문제중의 하나로되여잇스나 당국에서는 아직까지이문제에 대하야성의잇는 태도를 보히지안 어구시가 부민으로서는 불평불만이 만흐더니이다 이때문에 이문제를 부민전체의 여론화하여 실현을 긔약하기로 되여 이십삼일 오후일곱시부터 백선행긔념관(白善行紀念館)에서 구시가유지대회를 개최하고 제일성을 올니게되엿다 유지대회의 결의를 기다려 다시 부민대회를 개최하고 거부민의 맹운동을 개시키로되여 그진전이 큰주목을 끄을게 되엿다한다

# 本報平壤支局主催 經濟問題大講演

## 二十七日夜白氏記念館에서 演士 本報主筆 徐椿氏

【平壤】본사 평양지국에서는오는 이십칠일오후일곱시 삼십분부터 백선행긔념관에서 경제문제대강연회를 개최로되엿다 연사는 사계의 일대권위자인 본사주필서춘(徐椿)씨로 씨의 풍부한재료와 힘잇는열변은 현하의 경제문제와 압날의 경제문제를 가장세밀하게 해부하여상공업에종사하는 평양부민제위의 귀중한 참고 재료가될것은 적연한사실이다 때욱이 서춘씨의 강연에 접해보지오래인터이라 이밤의 강연회는 때욱의미를 깁게한다 산천초목도 쇄착이드면서 힘잇는삶의 『스타-트』를 약속하는 양춘을 마지하야 상공인으로제도 금번도의 대활약과 갱생을목표로 근지잇는 제일보를 내여노하야 될것은 물론이동시에 여긔에 자극제와 『캄풀』주사를 제공하는 뜻깁흔의미에서 우리 지국에서는 이모임을 주최하는터이다 오라! 드르라! 그리하여 제원의 사업에대한 보강공작(補强工作)으로하라! 이밤의 연제는 경제정책전환과그영향(經濟政策轉換及其影響)이며 청강료(聽講料)는 이십전균일이다

# 金鎭濚氏의 特志

【扶安】춘궁을 당하야 기아에 울고잇는 재민을 보고만잇슬수업다고 이에 동정한 부녕면신흥리(扶寧面新興里)김진영(金鎭濚)씨는 부령면에 금백원을 내여 한해 궁민구제일부에 서달나고 의탁하여잇다는데 이말을들은 일반은 그륵지에 칭찬이자 못하다한다

# 育英事業에 特志들

## 豐山의 金文鉉氏 二千圓土地提供 學級增加學年延長費로

【豐山】경북안동군 풍산지방은 례천안동(醴泉安東)간 중앙지대이오 안동군내에서는 제일요추지방이나 일개보교가잇다는것이 아즉것 이학급(二學級) 사학년(四學年)밧게되지 못하야 입학할아동은 입학할자리가업서서 가로에서 방황호곡하든 처참한현상을 연출하든중 지난십오일에 동면안교동(安郊洞) 김문현(金文鉉)씨가 수답삼천칠백여평 시가 이천여원어치를 당지 보교학급증가 학년연장비로 자진희사하엿슴으로 일반인사들은 씨의특지를 매우 찬양할뿐만아니라 암흑한풍산지방에는 일대서광의 경종이울니엿다한다 ◇寫眞…金文鉉氏

## 靑島의 林昌夏氏 一金千圓을 喜捨 安岳高普期成會에

【安岳】문화사회의 근본은 교육이면서도 현하 조선사회문제 제일요소를 점하고잇는 교육시설은 날을거듭하야 부궤되고잇는 이때 황해도안악고등보통학교를 설립코저 저간 각계인사의회생적회사는 그수가 벌서 오십오만을 돌파하얏고 이어적극적으로 운동하는이때 도한 새로운 뉴-쓰 일편을 접하엿스니 그는 중국산동성청도시(中國山東省靑島市)에서 실업에 종사하고잇는 림창하(林昌夏)(四○)씨가 먼저 본보긔사를접하고 고향인 안악고보긔성회로 보내주엇다 동림씨는 평남진남포출생으로 일즉 경성중앙고보를졸업하고 대정칠년도에 원대한포부를 가지고 독일백림대학(獨逸伯林大學)에 입학하야동대정십사년에경제과(經濟科)를우수한성적으로졸업하고 금의환향하야 남포사회의 사업에 진력하다가 지금은 중국청도에가서 상업방면에 전력을 기우리고 잇스면서 안악고보긔성의 보도를접하고 적성그대로 지난십칠일부로 일천원을 보내주어 일반의대중동을주엇다한다 ◇寫眞…林昌夏氏

# 四百餘名債務者 五千圓債權拋棄

## 碧潼劉載元氏美擧

【碧潼】아직까지 빗을 쿨고 세민에게라도 빗지운것만잇으면 차압집행등을과한업시하는 세상에 이제벽동(碧潼)에는 사백여명채무자의 오천여원 채권을포기한 청년 특지가가 생겻다 그는 일즉이 원적지인 원산본정(元山本町)에서 미곡상을 경영할때 남의 청탁을 한번도 거절하여본 적이업는씨의 선친유공인씨가 고리대금으로대부한 오천여원의 적지안흔 채권을 선친의 소상을 긔회하야 지난 십삼일 채권일체를 포기하는동시에 일체문부와 증서를 딴연가신문긔자 립회하에 소각하여 버렷다는데 평소에 효성이 지극한그라 도라가신선친을 빗내는반면에 다대한 희생적특지에 씨의 칭찬이자못놉다고한다

# 前妻아들을 보기시려 火箸로亂刺私刑

## 仁川府松林里의 慘事

【仁川】전실아들을 화저로 란자라한독부―시내송림리(松林里)백팔십삼번지 리상근(李相根)방 박종섭(朴宗燮)(三○)은 수년전 안해를 여이고 장자광순(光淳)(八)을 다리고 그날그날을 보내다가 마츰내 후실로 박로순(朴老順)(三九)을 마지하야 지내든바 그는 평소부터 편벽된 성미를가진 녀자로 항상그 전실 아들을 미워하야 남편이 업는사이에는 뒤둑나무가지에매여달고 무수란타할뿐아니라벌거케 달은화저가락으로 홍문(肛門)을 단근질하고 그래도 시원치아니하야 『인두』로 뺨을지지는등 학대가 심하얏든바 지난 십구일아츰에 또 그아들을 전과가튼 학대를 하는중 비명을들은 동리사람들이 부근주재소에 알니어 맛츰내 독부는 소관서에 검거되고 전긔 광순은인사불성이 되여잇는것을 도립병원에서 응급수당을 가하야생명에는 별지장이 업슬뜻하나전치까지에는 적지안은 시일이걸니리라한다

# 店村市區整理

【聞慶】경북점촌(店村)은 신흥시장인만큼 아즉 시구의정리가 불완비하야 급급히 느는인가에 따라 가옥을신축할나야 기지의 곤난으로 큰불편을늣끼여서 수년전부 시구정리를 실행하려고 하엿스나 여러가지 사정으로긔공치못하고 내려오든바 마참내 지난 십일부터 공사를 착수하엿다는바 일반시민은 완전히시가지가되도록실행하기를가대한다

# 阿火地方에火炎 三棟三戶全燒

【阿火】경주지방에서는 작년말 이후 각처에 화재가 빈빈하든 중 지난 이십일오전한시경 아화(阿火)김성국(金成國)방 부억으로부터 불이나서 이웃 정덕현(鄭德鉉)로갑이(盧甲伊)의집에 연소되여 삼동삼호를 전소하고 동서시에 진화하엿는데 손해와원인은 목하조사중이라한다

# 迎日灣遭難者 五名全部溺死?

【浦項】경북영일군곡강면벌포리(迎日郡曲江面浦里)송수의(宋守儀)소유의 발동선 수인환(守仁丸)(十五噸)이 지난십오일 강원도 방면으로부터 청어를만재하고 귀항(歸航)하든중 영일만구만포동(迎日灣九萬浦洞)압 바다에서 조난당하엿다하든 그후파도의 장혹가타려 선체(船體)는 인양하엿스나 선원 동선장 김봉률(金鳳律)외 선원네명은 아직까지 따평되지 안는것으로보아 빠저죽은것이 확실하다고 추측되여잇다한다

# 木浦共盟事件 第七回公判開廷

## 二年半、二年役言渡

【木浦】목포공산주의자동맹사건은 예정과가티 지난십팔일이십일 오전열시부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光州地方法院木浦支廳)제일호법정에서 계속공판이 개정되엿는데 압서 공판정에서 다음과가튼 판결언도가 잇섯다 한다

▲金正洙 趙点煥 李直雨 朴奭福 梁永秀 梁在容 各懲役二年六個月(未決通算四百二十日 趙点煥 九十日通算) ▲金應根 懲役二個年 執行猶豫五個年

# 中等校合格者

## 平壤農校(五十二名)

崔宗鎬 趙奎甫 李寅徹 安義錄 趙元國 張鳳成 崔基柱 李宗均 金化集 崔重璧 柳炳善 李基昌 朴潤源 朴鍾奎 車斗善 尹庠彬 李昌傑 孫永模 吳鎭八 南基奎 許彬 李昌爾 鄭元俊 金斗周 金箕植 金淳鎭 康南燮 湯基善 李正培 李承柱 金龍珠 許成律 李炳燮 李世傑 白泰俊 張允求 馬洛觀 崔聖淵 方達文 朴泳浩 金寬鎬 趙應龍 崔錫奎 張一祚 金壽道 尹昌俊 朴仁根 金知鉉 金應瑞 池仁龍 尹應世 金湧燁

## 崇仁商業

金道俊 韓相建 李殷善 洪德禹 林錫春 閔泳泰 金昌鎭 安東穗 金永洵 金錫煥 李吉柱 鄭泰復 趙東權 尹祚鎬 嚴淸淳 金炳浩 洪九叙 李貞杰 羅相壁 全履鎬 趙京夏 李明鎬 宋仁表 金晋與 金起寬 金光淳 馬善寶 徐義敎 全順德 金秉淑 金德基 金相洙 金宗麟 李丙一 李南珠 鄭根鎬 金永豊 金鳳植 林炳來 林業源 李允寬 張昌鉉 池世煥 金錫永 金淳河 金百漸 河文奎 金鳳烈 車玄根 尹應文 黃玉麟 金玉均 崔南吉 朴鳳鉉 金元植 玄啓浩 金禹鉉 金昌鎰 劉廣龍 嚴永壽 尹錫俊 金元吉 崔南鮮 金應燦 李國俊 康虎鎭 黃吉柄 朴能柱 韓錡勳 林浴 林鼎洙 金周泳 鄭良重 李允成 金允琯 韓用瑞 朴振陽 李亨善 李正麟 李鼎濬 崔慶喆 金根泓 白樂基 尹俊 朴達元 李三悅 朴大成 李春福 咸用善 潘河龍 趙光彬 鄭樂淳 金相澤 金容浩 尹斗星 洪山麟 李羲錫 張根錫 金光潤 李天錫 金應七 金應淳 金冕九 金利植 金基俊 崔石遜 申基燮 曹然祖 朴京熙 林承植 金昌國 金鳳善 金允七 安泰建 鄭光熙 尹正鎬 吳鎭敏 李相夏 金致昊 康炳禹

## 淸州農業

◎農林科 安昌根 李基俊 金在憲 金鎔俊 李相寅 鄭炳熙 朴斗煥 任敬宰 金貴永 趙泰衡 鄭昌洙 秦源天 朴文圭 李英基 尹達鉉 朴鍾文 申大均 朴濟元 李相弼 朴勝宅 金源百 金明煥 李啓雨 李相玉 崔東徹 朴快穆 南命熙

◎農畜科 閔範植 張基浩 趙漢旭 郭泳浩 李鶴鳳 尹容允 宋元燮 崔圭甫 宋憲燮 鄭海昌 金根準 李象周 金洛旻 朴相鳳 朴正圭 李鍾演 金鍾觀 申天植 金福鎰 表鉉十 金健重 尹斗炳 朴光淳 崔鎭久 辛炳烈

# 地方人事

▲裵昌燮氏(西城水利組合長)新任人事次 本報泰川支局來訪

▲前田豊治氏(警部補)公州警察署赴任人事次 本報公州支局來訪

▲柳志赫氏(弘濟醫院長)平岳面訓鍊里에서 醫院開業人事次本報安岳支局來訪

▲見野儀藏氏(釜山遞信分掌局監督課長)轉任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吉本惠七氏(臨津水利組合長)就任人事次本報汶山支局來訪

## 瑞山 春期映畫大會

▲時日 三月卄五日、六兩日(陰二月三、四日)午後七時半
▲場所 瑞山邑內、瑞山俱樂部
◇主催 上映社
◇後援 朝鮮日報瑞山支局

## 黃州 刺繡編物講習會

▲時日 三月卄四日부터二十八日
▲場所 黃州幼稚園
◇主催 朝鮮日報黃州支局
◇講師 康美娘、崔奉春

## 平壤 經濟問題大講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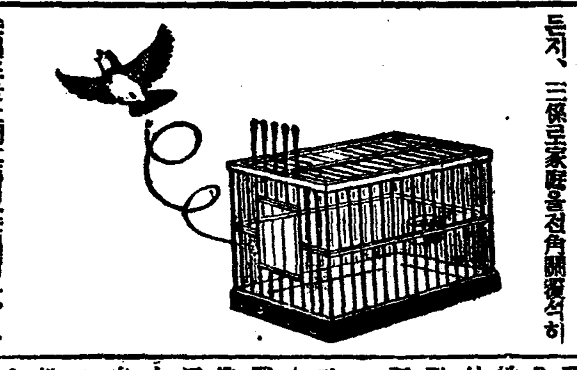
▲時日 三月二十七日下午七時半
▲場所 白善行記念館
◇演士 本社主筆 徐椿氏
◇演題 經濟政策轉換과其影響
◇主催 朝鮮日報平壤支局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頭取 有賀光豊
資本金參千萬圓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全鮮各地에支店出張所六十三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이有함

外科 X光線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醫學博士 鄭求忠
電話光化門六八五番

生〇器
發育不全은 男子의 資格을 缺
物理療法器로健全發育의福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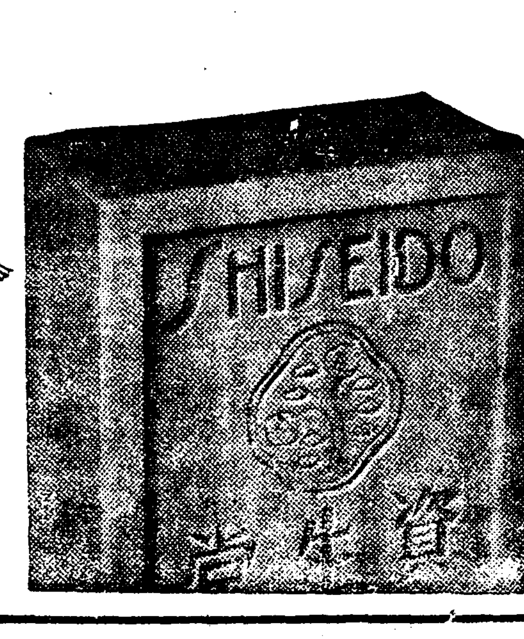
夫婦는、살어서는苦樂을함께하며 偕老後에는墓穴을한가지로함이바이며、夫에뒤떠러진妻를未亡人이라고함마큼、夫의半身이되는妻가、籠鳥가뒤도보지안코날너가는거와가티、未練도업시夫君을떠나고간다든지、三係로家庭을전혀關係치아니



는일도世上에흔히잇는일이다、그眞相을究明하여보면、男子의性的缺陷에原因되는때가가장만타고한다、男子로태여나서、妻를거나릴資格업는性器發育不全、機能障害나日獨佛專賣特許ホリツク眞空水治器를自手로秘密簡易하게、直接性器에使用하야、嶄新한物理療法을實行하면、目前에眞空吸引力을어르켜、新鮮한血液이生〇器에流集하야、組織을擴張식혀發育力을喚起하며、不自然行爲、過房의害遺精、夢精、早漏、陰萎、機能障害를回復하며、彎曲、弱小도健全發育케하는効가잇다。人生의幸福을다하고함同時에、이것을契機로男性다운元氣、腦力、記憶力을增進식혀、快活하게되야人生이快明케됨으로써、回復者는깁버하야그好評이嘖嘖하다。速히實驗하야男子一生의資格을完成식히기를努力하라。

醫學博士五十名實驗證明推奬日獨佛專賣特許ホリツク眞空水治器金五圓(送料內地二十五錢植民地五十五錢이다)又는包裝이째지안코自己로흥하게成形되는特許ホリツク包裝安全器는金四圓(送料內地十五錢植民地四十二錢)이다 代金引換希望者는、署名을明記하야藥書에注文하면、發送함(送料メ五錢增)이다、非賣品圖入說明書는全部無料로送呈함、노-트는지藥書로申込하면、現品이나說明書나모다匿名으로發送함秘密安心、곳東京芝區神谷町十八東京新療法研究所(振替東京七七三九番)에
但가짜에特히注意하시라。

資生堂洗濯石鹸
衣服바탕을안버리고잘빨닌다!
本品의特長
一、最高의品質 最低의價格
一、거품이 잘나오고
一、洗濯한뒤에 不快한내를안 남기고 쓰기조타
一、淨白力强하고 經濟的이다



東京銀座 資生堂

서에되게하숙만조아 다니삼을감호 …
ランラン洋髮香油

朝鮮日報 京販 電本(2)一五九七番

本舖 株式會社野村鶴商店

當る十八日大公開(晝夜三回)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漫畵 文武太平記 一二、〇〇 三、三五 六、五〇
曉の麗人 一二、一五 三、五〇 七、〇五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 完成記念超弩級作 一二、三五 四、一〇 八、二五
原作 新興脚本部合作 脚色 陶山密 撮影 古泉勝男 應援監督 川手二郎 監督巨匠 曾根千晴
新興東京、京都、高田プロ合同作 オールサウンド版
曉の麗人
高田稔、伏見信子、山路ふみ子、高津慶子、立松晃、霧立のぼる、河津清三郎、月形龍之介、歌川八重子、清水將夫、森静子、久松三津枝 大競演
新版オール・メンバー出演
脚色 如月敏 監督 吉田信三
撮影 吉見滋男 原作 夏目先生「お坊ちゃん」より、オール・サウント
文武太平記
嵐寬壽郎、杉山昌三九、大久保清子、嵐德三郎、五十鈴 主演 桂子 助演
千馬興業會社提供漫畵
特急艦隊 全一卷
亂痴さはざ 全一卷
永樂町 電本二〇五一 中央館

三月十九日부터大公開! 廣告한映時刻을左記와如히變更하엿나이다
第一回……午前十一時
第二回……午後三時
第三回……午後七時二十分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假面의男子 (名を失へる男)
후레드릭마-취 데이비드·홀트 主演
맛그에반스 ―
「고케을(?)撲滅하라! 그럼에도不拘하고現存하는大規模의강도團을敵으로一切의私生活을放棄하고死線에活動하는『G멘』의全貌! 凄慘!! 愴!!」
現代米國의半面을暴露한그現實性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
朝鮮 春香傳
韓一松 朴雲鶴 李鍾哲 盧載信 文藝峰 金蓮寶 朴齊行 金英淑
貫鐵洞 電光三九五 團成社

무롱과치롱에 진노-
東洋劇場
三月二十日낫부터 晝間一時夜間七時
前週連夜超滿員謝禮 新舞臺公演……第二週……
◇新舞臺所演脚本
◇戱曲 朴英鎬作 거룩한손님 三幕
第一幕白哥의집、二幕瑞愛의집、三幕牧師의집
出演……李東胡、朴孤松、朴貞玉、金愛順、羅龍基、崔天翼、金松天、許末羅、朴花順其外全員出演
◇爆笑劇 金雲湖編 汽車時間이느저서 全一幕
流行歌와漫謠 朴英姬、康瑞根 吳小玉、金鶴聲 밀리온레코드專屬歌手 李銀波、金壽勳
西大門通 電光3三二番